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국내 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90% 이하를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 상세 운용전략을 활용하여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치주에 주로 투자하며 주식시장 하락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 주식 편입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자본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 리스크관리팀에서 금융공학기법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구성 프로세스 확립, 위험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제공 및 운용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운용업무 및 포트폴리오 위험관리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74억 원

펀드유형 혼합주식형, 중류형, 개방형, 추가형
-주식 편입비 : 90% 이하

설정일

(운용펀드 : 2018년 03월 27일)

- 클래스 A : 2018년 03월 27일
- 클래스 A-E : 2018년 03월 27일
- 클래스 C : 2018년 03월 29일
- 클래스 C-E : 2018년 03월 27일
- 클래스 C-F : 2018년 03월 27일
- 클래스 C-P(퇴직연금) : 2018년 05월 23일
- 클래스 C-P(퇴직연금)E : 2018년 05월 23일
- 클래스 C-P2(연금저축) : 2018년 05월 28일

벤치마크 없음

참조지수 KOSPI 80%+Call 20%(참조지수)

신탁업자 국민은행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5시 30분 이전	2영업일	4영업일
15시 30분 경과후	3영업일	4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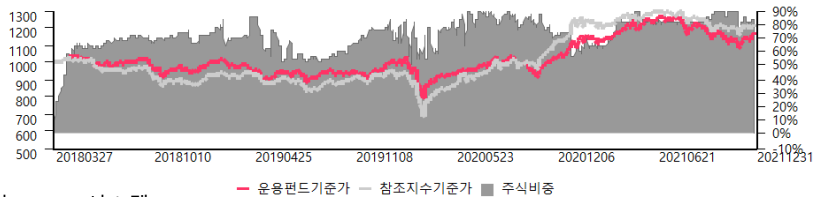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3등급(다소 높은 위험)

1	2	3	4	5	6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설정이후
운용펀드	9.24%	-0.00%	-7.17%	9.09%	22.00%	23.38%	-	17.17%
클래스 A	9.13%	-0.37%	-7.87%	7.50%	18.42%	18.00%	-	10.79%
클래스 A-E	9.15%	-0.28%	-7.71%	7.87%	19.26%	19.24%	-	12.26%
클래스 C	9.11%	-0.44%	-7.99%	7.22%	17.79%	17.04%	-	9.67%
클래스 C-E	9.14%	-0.32%	-7.77%	7.72%	18.93%	18.76%	-	11.69%
클래스 C-F	9.18%	-0.20%	-7.56%	8.21%	20.04%	20.42%	-	13.64%
클래스 C-P(퇴직연금)	9.12%	-0.39%	-7.92%	7.39%	18.19%	17.64%	-	7.75%
클래스 C-P(퇴직연금)E	9.15%	-0.30%	-7.73%	7.81%	19.16%	19.09%	-	9.35%
클래스 C-P2(연금저축)	9.12%	-0.41%	-7.94%	7.35%	18.08%	17.47%	-	9.36%
참조지수	3.92%	-2.29%	-7.68%	3.23%	28.92%	37.38%	-	19.63%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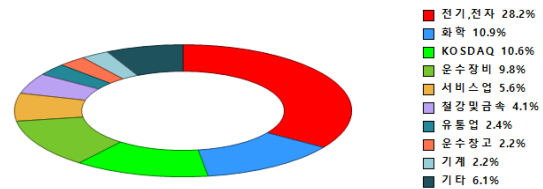


자산 구성 현황 (2021년 12월말 기준)

<전체>



<주식 업종별>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1년 12월말 기준, 주식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삼성전자	전기,전자	9.1	LG화학	화학	3.2
이수페타시스	전기,전자	6.1	현대차	운수장비	2.6
에스티팜	제약	5.1	엔씨소프트	서비스업	2.6
SK하이닉스	전기,전자	4.3	DB하이텍	전기,전자	2.6
SK이노베이션	화학	4.3	LIG넥스원	기계	2.2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중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A : 총 연 1.4825% (판매 0.7%)
- 클래스 A-E : 총 연 1.1325% (판매 0.35%)
- 클래스 C : 총 연 1.7525% (판매 0.97%)
- 클래스 C-E : 총 연 1.2675% (판매 0.485%)
- 클래스 C-F : 총 연 0.8125% (판매 0.03%)
- 클래스 C-P(퇴직연금) : 총 연 1.5825% (판매 0.8%)
- 클래스 C-P(퇴직연금)E : 총 연 1.1825% (판매 0.4%)
- 클래스 C-P2(연금저축) : 총 연 1.6325% (판매 0.85%)

(공통사항)

운용 0.75%, 신탁 0.02%, 사무관리0.0125%

선취수수료

- 클래스 A : 납입금액의 1.0% 이내
- 클래스A-E : 납입금액의 0.5% 이내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12월 KOSPI는 전월 대비 4.9% 상승한 2,977.65pt, KOSDAQ은 7.1% 상승한 1,033.98pt로 마감하였습니다. 동 기간 국내 주식시장은 물가 상승 압력과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부진한 흐름에서 벗어나 월 중반까지 강한 반등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코로나19 신종변이, 오미크론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는 가운데 업종 전반에 걸쳐 고른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전기전자 업종 중심의 업황 개선 전망이 부각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반도체, 운송, 정유 업종 등이 강세를 보인 반면 의약, 화학, 인터넷 업종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90.5원으로 전월 대비 보합세를 보였고 WTI 기준 국제유가는 75.21달러로 전월 대비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12월 한달 간 코스피(KOSPI) 기준 국내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는 반도체, 전기전자 업종 중심으로 약 2.8조원, 약 3.4조원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2022년 1월 국내 증시는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 등 대형업종 중심으로 업황 개선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향후 코로나19의 영향력 감소 및 공급병목 현상의 완화 등으로 부정적 영향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전기차 및 메타버스 등 신성장 산업에 대한 기대감, 견조한 수출 경기 등은 국내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될 가능성은 있으나 여전히 확장 국면의 글로벌 경기, 지난 해 대비 물가 상승세의 둔화 가능성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 기조로의 정책 선회 등이 연초 시장 상승 흐름을 이끌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델타 변이 대비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대규모 확산세에도 미국은 락다운 국면에서 위드 코로나의 정책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COVID-19의 영향력 감소와 위드코로나 국면 진입에 따른 글로벌 공급병목 현상 완화 등으로 인해 국내 수출주의 업황 개선 기대감이 부각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중국은 동계올림픽 이후 산업생산이 정상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까지의 긴축 기조에서 벗어나경기부양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경기 민감주에 대한 비중을 추가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1월의 시장 화두는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이벤트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상장시 시총 비중은 코스피 기준 3~4% 내외 수준이나 낮은 유통 주식수로 인해 높은 주가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이에 2차전지 셀의 비중을 확대하여 LG에너지솔루션 상장으로 야기되는 변동성을 축소하며 상장 이후 LG에너지솔루션의 적극적인 비중 확대에 주력할 계획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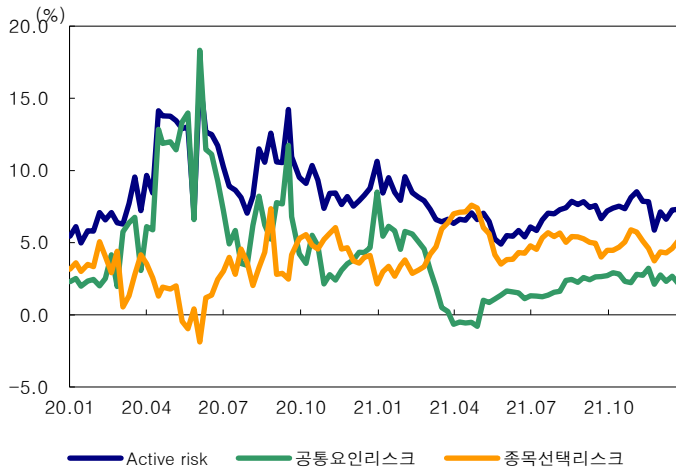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약속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

리스크 구성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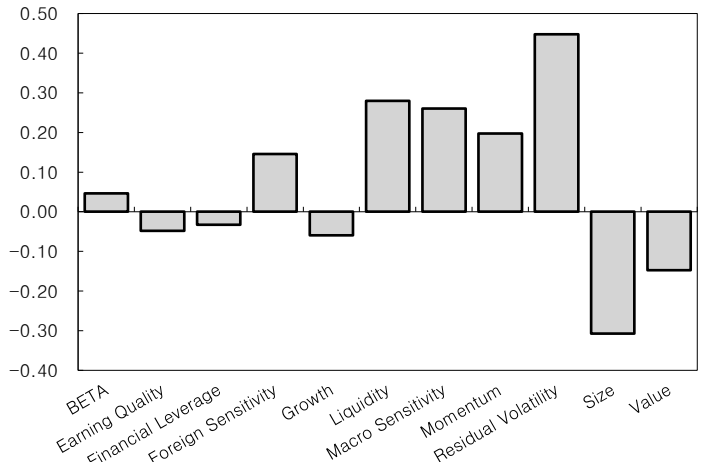
	2021-12-31	2021-11-30
Active Risk ¹	7.30%	5.43%
공통요인 리스크 기여도 ²	2.19%	1.44%
- 스타일 리스크 기여도	1.71%	1.65%
- 섹터 리스크 기여도	0.49%	-0.22%
종목선택 리스크 기여도 ³	5.11%	4.00%
베타	0.97	0.89

1. Active Risk는 참조지수 대비 펀드의 초과 수익률에 대한 변동성으로 공통요인 리스크와 종목선택 리스크로 구분됩니다. Active Risk 수치가 높을수록 펀드가 참조지수에 비해 적극적으로 운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공통요인 리스크는 스타일 및 업종 리스크와 공통요인간의 상관관계로서, 주식시장 전반에 미치는 리스크를 의미 합니다.
3. 종목선택 리스크는 경영성과, 노사분규 등과 같은 개별기업의 특수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리스크로서 공통요인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기업 고유의 리스크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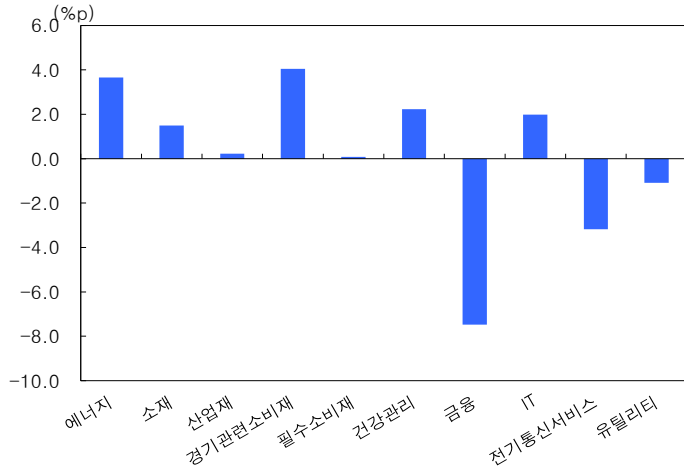
<Active Ris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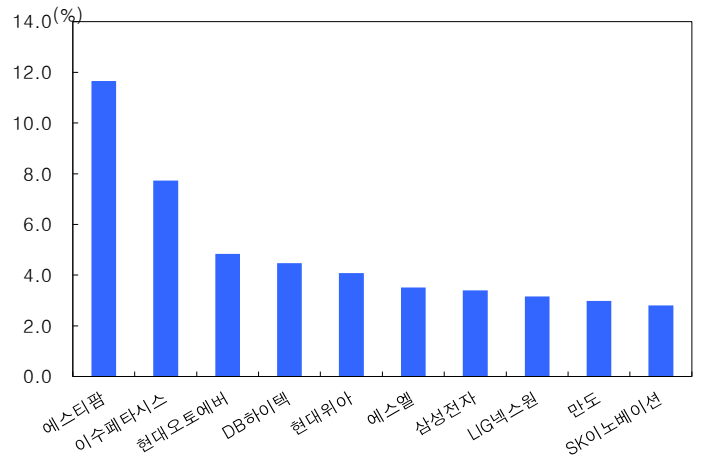
<참조지수 대비 스타일 비중차>



<참조지수 대비 섹터별 비중차>



<종목별 리스크 기여도>



분석 결과

*종목별 리스크 기여도는 11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12월말 현재, 이스트프링코리아스타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펀드의 Active Risk는 7.3%로 전월대비 증가하였습니다.
- ▶ 종목수는 전월대비 1개 종목 증가하여, 59개 종목을 유지하고 있고,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성향은 변동이 없었으나, 참조지수 대비 '에너지', 'IT' 등의 비중 차이는 증가하였고, '전기통신서비스', '금융' 등의 비중 차이는 감소하였습니다. 종목 기준으로 본다면, 11월말 기준으로는 '이수페타시스' 등의 리스크 기여도는 상승하였고 'SK이노베이션' 등의 리스크 기여도는 하락하였습니다.
- ▶ 종목 선택으로 인한 리스크는 전월대비 증가하였고, 종목집중 위험은 적절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 ▶ 동펀드는 'Size'보다는 'Residual Volatility'가 높은 스타일의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